

부동산개발자금(PF) 대출 전문은행
동양저축은행
10621226-0180

부자결혼의 꿈은,
이루어진다!!!
대우건설연구소 경영관
광주지사 062228-3222

憲裁, 신문·언론중재법 결정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현재 결정을 말한다.

신문의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신문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신문사들이 전체 발행부수 등 경영상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신문법상 조항은 합헌으로 결정됐다. <관련기사 3면>

신문시장 점유율 규제 경영정보 공개 의무화 신문·방송 겸영 금지 정정보도 가치분 절차

위헌
합헌
합헌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희 재판관)는 29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신문사와 독자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핵심쟁점 중 하나인 경영정보 공개 의무조항(16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문사들은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구독·광고수입 등과 관련된 자료를 신문 발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판부는 또 1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전국 발행부수 기준 30% 이상일 때,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일 때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신문법 17조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중 언론사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정정보도 청구를 가능토록 한 조항(14조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정정보도 청구를 본안소송이 아닌 민사집행법상 가치분절차에 따르면 한 조항(26조 6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문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이 크기 때문에 소유구조는 물론 경영활동에 관한 자료를 신고·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신문시장의 경쟁질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문법 16조(경영정보 공개)는 신문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거나 일반 기업보다 차별하는 위헌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관련 조항과 관련, "독자의 개별적, 정신적 선택에 의해 시장지배적 지위가 형성되는 만큼 불공정행위를 초래할 위험성이 특별히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위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신문법 제34조 2항 2호도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일간신문이 뉴스통신이나 일정한 방송사업 겸영을 금지한 신문법 제15조 2항도 합헌 결정이 나왔다.
재판부는 "신문의 복수 소유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지만 신문사의 복수 소유가 언론의 다양성을 저해하지 않거나 오히려 이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어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며 신문사 복수 소유 조항(15조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14조2항)에 대해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타인의 권리를 계속해서 침해하는 데도 이를 정정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두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 정정보도청구권은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민사집행법 상의 가치분 절차에 따르면 한 언론중재법 제26조 6항은 위헌으로 판단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인력난 가중...납품 못 맞출라”

‘주5일근무’ 앞둔 100인 이상 中企·근로자 하소연

광주·전남 235개사중 76곳만 시행 합의 근로자 “잔업·특근 늘어나 5일제 말뚝”

“현장인력은 부족하든 주 5일제로 인력난만 더 가중시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납기내에 부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경우 재계약 등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죠.”
101명의 상시근로자를 갖춘 삼성광주전자 S협력업체 대표 J모씨는 7월1일로 예정된 주 5일제 도입을 앞

두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J씨는 “토요 휴무를 지키자면 평일 잔업·특근량을 늘려야 하는데 이에 따른 생산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해외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만 생각해도 머리가 아픈 상황에서 자금난에다 인력난까지 덮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지 고민”이라고 걱정

했다.
다음달 1일 주 40시간 근무제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대기업에 이어 중소기업에도 주 5일제가 본격 시행되는 셈이다.
그러나 지역 제조업체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인력·자금난 등 고질적인 숙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번 주 5일제가 ‘무늬만 5일제’에 그쳐 근무환경만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8일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40시간 근무제’를 적용해야 할 지역내 사업체는 235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32.3%인 76개사만 노사

가 임단협 등 변경여부를 확정했을 뿐 나머지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미 확정된 76개사 중 토요 휴무를 시행하겠다는 업체는 80.3%인 61개사였으며, 15개사는 ‘주 6일제를 유지하면서 초과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T 레미콘제조업체 대표는 “초과수당에 관한 3년의 유예기간에 따라 평일 근무를 그대로 하고, 토요일에 근무하는 대신 초과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조측과 잘충하고 있어 인력분야의 문제는 없다”면서도 “전체적인 인건비가 시행전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면으로 계속>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한국 예절 배우요”

전남도가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29일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개최한 ‘다문화 가정 부부공동체 훈련’에 참가한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인 남편들과 함께 생활예절을 배우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국제청장 권춘기씨

광주지방국제청장에 권춘기(52·사진·전북 완주 출신) 국제청 부동산담세관리국장이 29일 임명됐다.
권 청장은 광주청 조사 1국장, 서울청 조사 2국장 등을 거쳤으며 국제청 부동산담세 관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동산관련 제세 탈루혐의에 대한 엄정한 대처로 조세정의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사명단 20면>
또 대전·대구·부산지방청장에는 강일형 서울청 조사 3국장, 김호기 국제청 개인납세국장, 정상근 국제청 감사관이 각각 선임됐다.
한편 차기 국제청장으로 유력시되고 있는 전근표 차장은 내주 임명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8월께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태기자 jilee@

2008년 대형 금융투자사 생긴다

‘자본시장 통합법’ 입법예고

빠르면 2008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골드만삭스처럼 증권·선물·자산운용·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가 생겨 금융계에 ‘빅뱅’이 시작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11면>

재정경제부는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올해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시장 참가자와 감독당국이 준비할 수 있도록 법 공포후 시행시기가 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해 이르면 2008년 하반기부터 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정필수기자 bungy@

호남예술제 부문별 최고상·심사평 > 15·16면

물가 36년 정보의 메카
SINCE 1970
국내 최고의 물가전문지
綜合物價情報
http://www.kpi.or.kr
한국물가정보
TEL:977-7700 FAX:97777-6002

포항학생회 창립 50주년 기념
남부대학교
http://www.nsbu.ac.kr
신입생모집 062-279-1114 > 1062-2891-0200-9
새로운 달이 뜨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ac.kr
신입생모집 0985-5231 > 1091-360-5000

대한불교 조계종 무각사에서 직접 사공하는 고품격 브리이엔
총 면적 1000평의 규모 - 총 300명
1층 1000평 2층 450평 3층 550평 4층 500평
5층 500평 총 2950평 부부단, 가족단
일주일 휴식과 휴식 10분 휴식 10분 휴식
상급호텔이 있는 넓은 주차시설
특별한 시설, 서비스, 편의시설, 휴식공간

무각사 승무원 1차원은 3
무각사 승무원 1차원은 3
전화 0621375-2744
팩스 0621375-2743

極樂殿
극락전

신학술 300기 분양

무각사에서 사공하는 고품격 브리이엔